



공간제약 극복한 선동미술

정치포스터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정치포스터란 무엇인가. 언뜻 생소하지만 우리는 생활 주변 곳곳에서 그것을 보았으며 지나쳐왔다. 지난 5월초 종로 거리를 메웠던 강경대 열사의 사진이 그대로 재현된 포스터가 그것이고, 자유총연맹에서 내건 북한비방 포스터 또한 정치포스터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미술혁명이 시작된 80년대 미술운동, 그중에서도 효과적인 선전·선동 모체의 결과인 출판미술운동차원에서 정치포스터의 의미를 찾고, 현재의 성과물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80년대 미술운동은 목판화와 절개그림으로 시작되었다. 목판화는 그것이 지닌 다량복제 기능을 활용하여 직접적 출판매체를 담당하거나, 다른 운동권 출판물과 결합하면서 미술운동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한 환경성과 대규 모성이 만만 할 개그림은 그것이 지닌 공동체적 창작방식과 선

로 말미암아 현재 '정치선전선동의 총아'로써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한편 여기서 지난 고창 37호에 실렸던 김정환씨의 글(p.271)중 특히 '...결개그림은 노동자의 투쟁을 생산지에서 운동장으로, 가두로 공허하게 끌고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정치포스터의 바른 이해를 위해 일부 수정을 가해야 할 것 같다. 정치포스터가 절개그림의 대안 그 자체가 아니며, 이들은 엄격히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말해 절개그림이 정해진 공간(집회)에 참여한 대중에게 선전하고, 그 대중 자체가 그림의 일부분을 이루는 반해방공간의 미술이라면, 정치포스터는 가두에서 모든 민중에게 선전·선동하는 효과적 매체인 것이다.

▶(이진욱) 한 정치포스터의 선전·선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량 배출되고, 전체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치포스터 자체의 역할이 구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포스터를 나의 매체로 삼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모든 운동의 출발점일 것이다. 더불어 전체 미술운동의 성숙 속에서 한단계 높은 새로운 매체의 개발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절개그림만 그리면 미술운동 한다는 착각은 버려야 할 때다. (김미영 기자)

대중성 근거한 출판 미술운동 일환 '매체'로 인식하는 자세 필요

동성으로 인해 전체 미술운동의 기폭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목판화가 무속화, 민화 등 봉건적 내용의 추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절개그림 역시 같이 작업한다는 의미 이상을 찾을 수 없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인작가의 수공적 제작-소수 유통권 구매-미술품의 투기 대상화'가 지배적이었던 기존의 미술계 상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목판화나 절개그림의 오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80년대 초 '현실과 발언' 등인들은 출판미술운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출판미술의 중요한 한 분야로써 정치포스터는 총체적 상징성, 과학기술과의 결합, 언제 어디서나 공간적 제약없이 대중과 만날 수 있다는 자체매체의 건장성으로

그러면 이러한 정치포스터가, 지난 89년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이하 노동연)'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기만 할까? 그만큼 민중미술에서 정치포스터가 부진했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선, 포스터 자체에 대한 수요와 인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선전의 전략·전술은 물론 포스터가 부착될 벽조차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정치적 이슈보다는 '현실과 발언' 등인들은 출판미술운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출판미술의 중요한 한 분야로써 정치포스터는 총체적 상징성, 과학기술과의 결합, 언제 어디서나 공간적 제약없이 대중과 만날 수 있다는 자체매체의 건장성으로

터에만 주력해온 화가 김현영씨의 말에서 옹호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강경대 열사 장례식에서 정치포스터에 투자된 비용이 전체예산의 1백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다. 그만큼 정치포스터에 대한 인식이 낙후하다는 증거이며, 이것은 노동운동을 한다는 '전노협'도 마찬가지여서 '노동연'에서 포스터를 하나 제작하려 해도 예산문제가 자주 걸리죠.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제작하느냐에 따라 정세를 보는 시각과 포스터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실무자로서 난관입니다." 현재 '민중미술협의회'에서도 정치포스터에 대해 조직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생적인 움직임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 좀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선전작가가 대

식 전환이 모든 운동의 출발점일 것이다. 더불어 전체 미술운동의 성숙 속에서 한단계 높은 새로운 매체의 개발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절개그림만 그리면 미술운동 한다는 착각은 버려야 할 때다. (김미영 기자)

마이크로코즘(microcosm)은 신 과학 용어로 새로운 컴퓨터 기술과 그들이 주도하는 경제를 뜻한다. 이것은 물리학의 구체적이고 현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학에서의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현상학적으로 접근보다는 궁극적 진리를 볼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과학과 종교의 타협이나 자유로운 정신세계의 이해등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크로코즘의 용어적 설명은 소우주 즉, 소립자의 미시세계를 뜻하는데 물리학의 양자역학의 한 용어이다. 또한 마이크로코즘은 매크로코즘(macrocism)과 상대되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과학문명의 발전은 양자물리학에 기초한다. 양자물리학 즉, 양자역학은 전자가 원자안에서 핵의 주위를 도는 입자인것이 아니라, 확률의 개연성으로 나타나는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일 수 있고 불연속적이다. 물질의 내부구조를 처음 밝힌 양자역학은 오늘

극단 '한강' '노동자...' 공연 현실의 여러 단면 재현해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의 연극분과 극단 '한강'이 제5회 정기공연 '노동자를 싣고가는 아홉대의 버스'를 오는 30일부터 6월30일까지 오후5시와 8시(단, 월요일 공연은 없으며 화-수-목 8시만 공연) 해동동에 위치한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재공연한다. 지난날 18일부터 28일까지 공연한 바 있는 이 작품은 작가 김

주현씨가 한 무명작가의 개인전 람파라는 틀을 빌어 아홉개의 서로 독립적인 장면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꾸민 것이다. 연극을 구성하는 아홉개의 장면들은 사진사가 소개하는 아홉장의 사진을 형상화한 것이다. 정진영, 이종우, 김승연, 이태원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이수인씨가 연출을 맡았다. (문의:338-6031)

'고도극화'실리극 공연 한의대 연극동아리 '고도극화'는 오늘부터 이틀간 오후4시와 6시에 크라운관에서 '마지막 포옹'을 공연한다. 이동근, 장상일이 연출하고 정민호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윌리엄 잉게 윈저의 'The disposal'를 각색한 것으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사회의 구조속에서 살인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밀린 4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치열하게 살의 욕구를 느끼는 모습과 심리를 그리고 있다.



단절된 인간의 극단적 파괴

프란츠 노보트니 감독의 '특종'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던 고대에서부터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의지는 배양되어 왔으며, 이 의지는 술한 압투와 음모, 살상을 배후에 감춘 채 정복자(권력쟁취자)의 화려한 외양만을 찬양해왔다. 후기산업사회·정보화시대에 사는 현재에도 정권의 그늘에는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비리와 만행이 거듭 자행되고 있다. 철학적 의미에서의 권력에 의의는 차지하더라도, 현대정치사에 이어 내려온 탈법적 정치활동이나 몰도덕적 술수는 시민의 이념으로 비판되어 왔다. 이에 코스타-가브라스(Costa-Gavras) 등의 영화작가들은 특정 사건·사고에 대한 영화적 극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배경과 그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위를 재구성 함으로써 지배자의 의의와 사건의 본질을 어떤 보도나 아사편찬보다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이처럼 실제로 일어났었던 특정 정치사건을 영화로 재구성하여 당시 역사를 재음미하도록 함으로써 규탄받아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는 영화를 '정치영화'라고 한다.

크로 의원은 중증장애에 화학무기를 밀공급하는 스태들과 손잡고 정계에 들어서려 한다. 크로트의 선거유세를 위한 상영 자료를 모으기 위해 세인트 안드레에 있는 컴팩에 온 방송기자 매시는 화학무기의 파괴를 목격하고 이를 카메라에 담는다. 영화의 전반부는 매시의 시각 즉 매시의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사건 전모를 관객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데, 이 시점의 이용은 객관성의 확보라는 의미에서 이 영화가 본래 의도한 '폭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즉, 관객은 화학무기의 실험과 그것의 결과가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이 기자가(카메라가) 포착했기 때문에 현실이 되어버린 영화화면을 스스로의 현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참상의 목격자로서 관객은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가 중반을 넘어서 매시의 보편사관 플랫폼에 프라지가 자신들의 주변인물들-무기밀매자 스태들, 의원 크로트, 방송편집장 쏘실, 프리츠의 부모 등-사이에서 갈등하고 정의로의 갈망과 패배를 경

험할 때, 관객은 그들(매시와 프리츠)조차 대상화하여 보게된다. 이 대상화(혹은 관객의 객관적 위치 확보)는 정치영화의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앞서 전개된 전반부의 시각이 매시였던 까닭에 관객은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더구나 프란츠 노보트니 감독의 감각적 영상과 파괴적인 편집은, 전반에서 구축되었던 참

취체의지와 그에 따른 보복, 프란츠 어머니의 죽음, 공장관리자의 허무한 죽음들을 과감하게 연결하여 일련의 종말론적 이미지만을 남김으로써 사건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영화 '특종'은 시작에서 매시의 입장을 관객의 것으로 했다. 물론 그녀가 방송기자라는 설정은 유용한 면이 있지만, 이 설정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채 중간에서 매시마저 희생자로 떨림으로써 매시의 행적에 대한 상황-스스로 시점을 설정해야 하는 공백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노보트니 감독의 감각적인 영상표현에서 멀리 떨어지려는 노력과 혼란된 편집에 의한 접근노력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실 '정치영화'라는 개념은 모호한 경계선으로 둘러쳐져 있다. 소재의 선택, 등장인물의 정치적 태도나 행위, 사건 전개의 정치적 의미와는 별도로 연출가의 목소리가 개입되기 마련인 영화에서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면적인 가능성을 이미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타-가브라스의 'Z나 '실종'을 '정치영화' 개념의 효시로 본다면, 이미 '정치영화'라는 단어 속에서 영화적 현실을 실제사실로 전제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영화는 현실이 아니며 영화 내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노보트니 감독이 선택한 화학무기라는 정치적 질문은 소재는 그저 영화를 위한 소재일 뿐, 관객이 흥분할 만한 소재, 현실에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소재가 못 된다. 이쯤되면 아마도 노보트니 감독은 자신의 영화에 '정치영화'라는 딱지를 붙는 것에 불만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영화' 범주에 들지 않는 '특종'의 영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의미한 감각의 세계에 대한 감독의 감각적 표현이 고전적 영화전개방식과 갈등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종말론적 세계관을 홀려보낸 혼란의 영화 세계였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특종'을 통해 어떤 정치사건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절된 인간 관계의 극단적 파괴현상을 보며 거듭 소외당할 것이다.

이진욱 (영화공간 1895 대표)

감각적 표현은 종말론적 세계관 표현
기자정신, 저널리즘 의미에 질문 던져
화학무기 소재선택, 현실성 감소시켜

상복격의 순간들, 영화내 목격자-관전자-이용자들 간의 갈등으로 이질시켜 버림으로써 순간 포착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영화후반은 실로 중요한 문제, 화학무기의 매대경로, 사용지역, 이를 악용하는 정치적 세력들의 음모들을 객관적으로 잡고 폭로하기 보다는 매시의

유형순 (산업정보대학원 석사5기·전산학)

조국은 싸우고 있다
백만학도의 사랑, 투쟁, 영광
오늘 창춘은 빛난다.

6월 1일~2일
부산대학교
전대협 5기 출범식

자주·민주·통일
부산
갈매기
바다
그리고
전대협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자랑찬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 다시 출범식을 갖습니다. 살인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백만청년학도의 5월투쟁은 너무나 가열했습니다. 그리고 오월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다. 5월을 덮고 6월을 넘는 백만학도의 투쟁속에 그 기폭제가 될 우리의 자랑찬 전대협 출범식이 있습니다. 조국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부산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방해를 놓는 색안경 쓰신 무전기 든 사람들은 말고.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백만학도 단결투쟁 공안통치 끝장내고
민주정부수립하자!